

이단경계주일

자료집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단사이비문제상담소

머리말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본 교단 에큐메니칼위원회의 요청으로 109회기 이단사이비 예방 및 대처 활동의 일환으로 해외 선교현장과 목회 현장에서 이단사이비 집단의 활동에 대처하기 위해 이 자료를 한글과 영어로 준비했다. 국내에 기원을 둔 이단사이비 집단들이 이제는 국내를 넘어서 해외로 포교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자료에서는 해외에서 이단사이비 집단의 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그 확장과 그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그동안 총회에서 이단으로 결의된 국내에 기원을 둔 9개, 미국에 기원을 2개의 이단사이비 단체의 핵심 사설들을 연구보고서의 결론에 입각하여 간략하게 소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이단사이비 사설을 소개하는 내용 앞뒤로 총회 이단사이비 정의 및 판단 기준과 실천적인 구체적 대처 방안으로 10가지 실천 사항과 수칙을 실었다. 부디 본 자료가 해외 선교 현장과 목회현장에서 이단사이비 단체의 발호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도한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단사이비문제상담소

총회 이단·사이비 정의 및 판단 기준

이단사이비 집단의 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그 폐해를 미연에 예방하고 또 그 폐해에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단사이비 집단의 실체를 바르게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점에서 총회에 속한 교회들, 목회자들, 그리고 해외 선교사들에게 이단사이비에 대한 총회의 공식적인 정의, 판단 기준, 종합 대책 등을 알리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기에 규정과 운영세칙의 해당 사항을 소개한다. 특별히 이단사이비 집단의 실체를 분별할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단·사이비의 정의

이단·사이비 용어와 관련해서 본 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이단’이란 성경 및 공교회의 주요 교리에 위배 되는 사상이나 그런 사상을 추종하는 집단을 말한다.
- ‘사이비’란 사회적, 반윤리적 행위를 조장하는 사상 및 그런 사상을 추

종하는 유사 기독교를 말한다.

- ‘이단성(사이비성)’이란 이단이나 사이비로 규정하기에는 정도가 약하나, 그러한 요소가 있어서 일정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 ‘참여금지’란 집회나 교육 프로그램이 성경적, 목회적으로 문제점과 부작용이 현저한 경우에 참여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참여자제 및 예의주시’란 참여 금지로 규정하기에는 정도가 약하나, 문제점과 부작용이 예상되어 일정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 참여를 자제토록 하고 총회가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 ‘이단사이비 옹호언론’이란 이단이나 사이비로 규정된 개인이나 집단의 수장을 옹호 홍보하거나 관련 광고를 게재하는 언론을 말한다.

이단·사이비의 판단 기준

운영세칙은 제4조에서 이단·사이비의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이단 또는 사이비로 규정할 때 그 기준은 오직 성경이다.
- 성경의 올바른 해석을 위하여 총회 헌법(교리편)과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한다.
 - ① 사도신경
 - ② 신조
 - ③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및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 ④ 기타 개혁신교회의 교리와 신학 전통
- 이단 또는 사이비 등으로 규정할 경우 성경의 가르침에 현저하게 모순

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 본 위원회는 이단, 사이비로 규정할 때 반드시 위에 준하는 증거를 확인하고 지금까지 보편적 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다음 각 호에서 예시한 내용을 참조하여 심사숙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계시론에서, 성경에서 벗어난 계시 강조

성경론에서,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다른 경전이 있다고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거나 성경을 왜곡하여 현저히 잘못 해석

삼위일체론에서, 삼위일체를 부정하거나, 삼위일체를 현저히 잘못 가르치는 경우, 예를 들어 종속론, 양태론, 삼신론 등으로 가르침

그리스도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과 참 사람(vere deus vere homo)임을 부정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부정하거나, 성육신, 동정녀 탄생, 죄 없음, 대속적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심판주임을 부정

성령론에서, 성령의 신성 또는 인격성 부정

구원론에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이신칭의를 부정하거나, 오직 은총으로 구원받음을 부정하는 펠라기우스주의(준펠라기우스주의 포함), 예수 그리스도 외 구원자를 인정하는 종교다원주의 옹호

종말론에서, 신자의 부활, 심판, 천국, 지옥 등을 부정하거나, 지나친 시한부 종말 주장

교회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는 공교회를 비방하거나, 공교회 안에 구원의 진리가 있음을 부정하고 자기 집단에만 구원이 있

다고 주장

인간론에서, 인간을 신격화하거나, 교주를 메시아 또는 성령으로 칭하거나. 신자가 의인이면서 죄인(simul iustus et peccator)임을 부정

창조론에서, 하나님의 창조주임을 부정하거나, 창조신앙과 모순되는 진화론을 주장하거나,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음을 부인하는 퀴어(queer) 사상 옹호

이단 사이비 집단의 주요 이단사이비 교설

1.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만희)
2.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안상홍증인회)
3. 만민중앙교회(이재록)
4. 국제크리스천연합(정명석/JMS)
5. 구원파
6.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문선명)
7. 지방교회(위트니스 리)
8. 베뢰아아카데미(김기동/성락교회)
9. 세계복음화전도협회(다락방/류광수)
10.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몰몬교)
11.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안식교)
12. 기타 이단사이비 집단의 사실에 대한 간략한 설명 도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은 이만희를 교주로 삼으며, 최근 10년 동안 한국교회와 사회에 가장 커다란 피해를 끼친 이단 집단이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언론을 통해서 그 실상이 공개되면서 커다란 타격을 받았지만, 코로나 이후 여전히 공격적으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기에 지속적으로 경계해야 할 이단 집단이다.

이단적인 계시 사설에 기초하여 성경에 대한 왜곡된 해석을 주장한다.

성경은 비유와 비사로 봉합된 또는 암호로 기록된 상징의 말씀이라고 주장한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받은 ‘환상 계시’와 예언이 성취될 때 이만희가 받은 ‘실상 계시’를 구분함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부정한다. 요한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책을 받아 먹은 사도 요한이 직통 계시를 받은 이만희라고 주장한다.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만을 새 언약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교묘하게 부인하는 이단 사설을 주장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이 인간 예수의 육체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한 구원을 부정하는 이단적인 구원 사설을 주장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온 지상 사명자’ 또는 ‘사도 요한적인 사명자’인 이만희를 만나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구원은 오직 신천지에만 있고 구원

의 노정 순리는 배도-멸망-구원 순서로 이루어지며, 이만희가 배도와 멸망의 사건을 본 증인이며, 그것이 이루어진 계시록의 실상이 신천지에 있다고 주장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재림과 보혜사 성령의 교리를 왜곡하고 이만희를 재림주와 보혜사 성령으로 신격화하는 이단 사설을 주장한다.

‘인자인 한 육체를 지닌 사명자’인 이만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주장한다. 예레미야 31장의 예언대로 초림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씨를 뿌리셨고 오늘날 재림 예수요 보혜사 성령인 이만희가 요한계시록 14장과 같이 추수한다고 주장한다.

세대주의 종말론의 한 형태인 삼시대론에 기초한 이단적인 종말 사설을 주장한다.

육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영적 새 이스라엘의 시대와 각 시대별로 이른바 이긴자인 구원자가 있으며, 요한계시록이 성취되는 신천지가 영적 새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한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은 순교의 영혼이 임한 신도 14만 4,000명이 채워지면(이후 ‘인 맞은 14만 4000명과 흰무리’로 변개) 동방 해 돋는 극동에 위치한 과천 신천지에수교증거장막 성전에서 시작되고 완성된다고 주장한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을 제외한 모든 교회는 사단이 주관하는 바벨론이며, 오직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만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구원의 처소인 시온산이라는 이단 사설을 주장한다.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안상홍증인회)〉는 사망한 안상홍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신격화하면서 신성모독하는 이단 집단이다. 안상홍의 사망 후 〈새 언약 유월절 하나님의교회〉와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외 몇몇 분파로 나누어져서 교세를 확장하고 있다.

다윗의 왕위 40년을 예언의 성취로 신성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3년의 공생애 사역은 40년을 채우지 못했기에 재림 예수가 다시 와서 37년을 채워야 40년 역사가 완성된다고 주장한다. 안상홍이 37년을 채우기 위해 ‘멜기세덱의 반차’로, ‘다윗의 예언’으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재림 예수 또는 그리스도’요 성령시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 안상홍을 ‘하나님 아버지’로도 부른다.

안상홍 사후에 장길자를 신격화한다. 장길자를 안상홍 생전에는 ‘하나님의 신부’로, 안상홍 사후에는 ‘하늘 어머니’로 부르며 신격화한다.

구약성경대로 안식일과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성경에 없는 주일이나 성탄절을 지키는 정통 교회를 도리어 이단이라고 주장한다. 주일도 크리스마스도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며, 주일의 이름(Sunday)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토요일인 안식일을 주일로 바꾼 것은 우상숭배의 배교행위라고 비판한다. 오늘날 새 언약의 유월절 떡과 포도주로 제사 드려 생명을 이어받는 교회는 오직 자신들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일예배는 이들의 주장대로 4세기경 바뀐 것이 아니라 이미 사도 시대부터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모여 예배하였던 사도적 전통에 따른 것이다.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는 성경,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교회, 시한부 종말에 대한 교리를 왜곡하는 사설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단 집단이다.

* 최근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사회 봉사 활동이나 기존 교회 건물을 사들이는 등의 포장을 통해서 교묘하게 포교하면서 교세를 확장하고 있다. 또한 본 교단을 포함한 정통 교단의 이단 연구나 결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법적 대응도 불사하기에 특별히 개인이나 개별 교회의 이단 대처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03 만민중앙교회(이재록)

이재록의 <만민중앙교회>는 신비주의적 계시관에 따라 성경을 자의적이고 독단적으로 해석하면서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왜곡하는 이단사설을 주장하는 이단 집단이다. 이재록은 직통 계시를 강조하여 마치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제나, 무슨 일이나 계시를 받는 것처럼 주장한다. 이재록이 사망한 후에 두 딸이 이어받아 활동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적인 사설을 가르친다.

하나님을 자기가 마음대로 부르면 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오시는 분

으로 자신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자로 격하하며, 자신을 가리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심판의 권세자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하면서 자신을 신격화하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사설을 주장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 받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교리를 부정하고 마치 자신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 및 구원에 대한 왜곡된 사설을 주장한다.

이재록 자신은 ‘피가름’을 통해서 원죄도 자범죄도 없고 죽음도 없으며, 성령께서 치유하시는 능력을 마치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호도하는 왜곡된 사설을 주장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재림과 휴거될 것을 알려 주시고 마지막 심판 때에 자신이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 보좌 좌편에 앉아 자신의 성도들을 위해 변호하며, 믿음의 분량에 따라 상급과 거하는 처소가 다르다는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5단계 신앙관과 천국관 또는 내세관 등의 이단 종말 사설을 주장한다.

04 국제크리스천연합(정명석/JMS)

정명석(JMS)을 교주로 하는 <국제크리스천연합>은 통일교의 영향을 받아 생겨난 이단 집단으로 주로 청년층과 대학생들을 포교대상으로 삼아 교세를 확장하였다. 교주 정명석은 국내외적으로 성추행, 성폭행 행각으

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왔으며, 중국에서 도피행각을 벌이다가 최근 국내로 소환되어 사법심판의 절차를 밟고 있다.

성경은 모두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비유와 상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기성교회는 성경을 시대성이나 과학성을 고려하지 않고 문자적, 교리적으로만 해석하는 등,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선악과 사건을 하와와 타락한 천사(뱀)와의 성관계를 통한 타락으로 해석한다거나 오병이어는 결코 떡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며 12광주리에 부스러기가 남았다는 것은 12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전한 말씀 외에 부스러기 같은 말씀을 갖고 있다는 등, 성경을 비유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성경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등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한다.

“성부 성자 성신은 각위로서 하나가 아니다. 삼위가 일체라면 하나님이 마리아 뱃속에 들어갔다는 말인가?; “삼위는 아버지(성부), 어머니(성신), 아들(성자)로 인간의 가정관계와 같다”; “예수님은 사람이다. 삼위일체인데 어째서 자기가 자기를 몰랐는가? 그것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2천 년 동안 삼위일체라는 잘못된 신학을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구약과 신약, 모든 기독교의 역사를 실패한 역사라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모독하고 부정한다.

정명석은 “유대교는 영적인 실패자요 신약시대는 성령이 실패하였으며 기독교는 영적인 실패자이며 기독교에는 희망이 없다”고 주장한다. 정명석 자신이 “요시아왕같이 하나님이 보낸 자이므로 기독교가 자기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육체의 부활 교리를 부정하면서 왜곡된 부활 사설을 가르친다.

‘중생 부활’, ‘재림 부활’과 같은 자의적인 부활 개념을 제시한다. ‘재림 부활’은 “부활을 믿되 영이 다른 사람의 육신에 재림하는 것”이며, “엘리야는 요한의 몸에 재림 부활하였기에 몸은 요한의 몸이지만 실제로는 엘리야로 세례 요한은 요한과 엘리야 두 사람”이라는 해괴한 사설을 주장한다. 육체의 부활이란 ‘행실의 부활’이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 영의 부활로 육체의 부활을 부정한다.

정명석 자신이 재림주라고 주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교리를 왜곡한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중으로부터 육신으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믿고 고대하고 있으나 사실은 엘리야의 영이 세례 요한에게 재림하고, 모세의 영이 예수님에게 재림하듯 재림주는 부활 승천하였던 예수님이 육신으로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 가운데서 시대적 중심인물을 선택하여 그에게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여 협조하므로 재림 예수의 사명을 다하게 하신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명석 자신은 “앉아서도 영계를 돌아다닐 수 있다”는 등 바로 “이 시대에 보냄을 받은 자”, 곧 재림주라고 주장한다.

05 구원과

구원파는 <기독교복음침례회>(권신찬, 유병언), <생명의말씀선교회>(이요한), 그리고 <기쁜소식선교회>(박옥수) 등의 계열로 분화되어 있는 이단

단체로 특별히 왜곡된 구원 사설을 주장해서 구원과 불린다.

성경에 대한 알레고리적 해석을 심각하게 오남용한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만, 정통 교회와 다르게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을 오남용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을 왜곡하는 영지주의적인 구원 사설을 주장하는 이단 집단이다.

믿음과 회개가 없는, 이른바 ‘깨달음’을 통한 구원, 즉 깨닫고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구원받은 시각(영적 생일)을 알아야 하며, 육적 생일을 기억하는 것과 같이 영적 생일을 기억해야 구원받은 증거라고 주장한다. 구원에 대한 피동적 깨달음 자체를 강조하는 것은 영지주의적 이단 사설이다.

회개를 계속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는 왜곡된 구원 사설을 주장한다.

하나님께로 한번 돌이킨 구원받은 자들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모두 사해졌으므로 회개를 계속하는 것은 사죄의 확신이 없는 증거이기에 구원받지 못한 지옥의 자식이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지옥으로 가며, 스스로 의인이라고 해야만 구원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 참된 믿음은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용서 받으며 성령의 역사를 통한 성화의 삶이 뒤따라야 한다는 바른 구원관으로 대 처해야 한다.

반사회적인 세대주의적인 긴박한 시한부 종말 사설을 주장한다(권신찬/이요한 계열).

긴박한 종말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여 구원과 집단에 들어오지 않으면 공중재림 때 휴거될 수 없고, 소위 7년 대환란을 겪어야 할 것처럼 믿음을 강요한다. 또 구원의 수가 채워져야 신부인 교회가 완성되어 휴거된다고 주장한다.

기성 교회, 교회의 제도 및 예배의 형식 등을 부정하면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성도를 미혹하는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최근 기독교 미션 스쿨을 인수하여 인구 감소 및 대학 입학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외국 유학생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포장하는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어서 특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

06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문선명)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은 문선명이 세운 이단 집단으로 이후 많은 이단 집단의 모체 역할을 하다시피 했다. 교주 문선명을 이어 부인 한학자는 자신을 6천 년 만에 탄생한 독생녀라고 주장하고 아들 문형진은 친모 한학자를 음녀, 사탄의 핏줄이라고 비난하면서 서로 후계 싸움을 벌이고 있다.

성경을 구약, 신약, 그리고 성약(성약)으로 구분하는데 『원리강론』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성약서라고 주장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상대화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자로 간주하고 재림 예수요 메시아인 문선명이 그 사명을 완성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영적으로는 완성되었지만, 육적으로는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라면 사탄의 시험이나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다는 논리를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때 그 육신이 사탄의 침범을 당했으며, 사탄의 침범을 당한 예수의 육신과 한 몸을 이룬 신도들의 육신도 마찬가지로 사탄의 침범을 당하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로써는 육적 구원을 완성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재림주인 문선명이 나타나 영육의 구속 사업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선명이 명령한 대로 실천하는 신앙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른바 ‘당감복귀설’을 주장한다.

‘당감복귀설’은 『원리강론』에서 주장하는 핵심 이단 사설로 타락설과 복귀설로 이루어진 구원 사설이다. 창세기 2장 17절의 선악과 사건, 즉 인간의 타락 사건을 하와와 사탄의 성적인 관계로 해석하고 불륜한 음행 관계로 인한 사탄의 더러운 혈통 구원을 위한 해피하기 이를 데 없는 ‘피가름 의식’을 주장한다.

문선명은 “동방의 해 돋는 나라”(계 7:2)의 재림 메시아라고 주장한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보내신 분”이 문선명이라고 주장한다. 지상 천국이 동방인 한국에 건설된다고 주장한다.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의 지도하에 중국에서 기원한 <지방교회>는 양태론적인 삼위일체 교설과 신인합일설을 주장하는 이단 단체이다. 한국의 지방교회는 1966년에 시작되어 1980년대 이후 위트니스 리가 내한하여 그 영향 아래 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에 90여 개의 집회소를 세우고 한국 복음서원을 통해 문서출판 활동을 하면서 교세를 확장하고 있다.

변형된 형태의 양태론적 삼위일체론을 주장한다.

위트니스 리는 정통적인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를 부인하고 ‘삼일 하나님’이라는 사설을 주장한다.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삼위가 경륜적으로 점진적인 일치의 과정 또는 단계를 거친다는 해석이다. “하나님은 근본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표현이요,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람 안에 전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삼일성의 세 인격은 하나님의 경륜의 과정에서 이어지는 세 단계가 된다”; “하나님은 성육신의 과정을 거치는 단계를 통해 세 인격이 하나로 발전된 것”이라 주장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대한 왜곡된 교설을 주장한다.

예수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죄 있는 육신’, ‘사탄이 거하는 사람 또는 육신’을 입고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부활 전 예수는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예수의 인성이 부활을 통해서 거룩하게 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의(예수) 인성이 아들의 명분으로 태어나기 위하여 부활이 필요했다. 부활 이전에 그리스도는 그의 신성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인성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

다”고 주장한다.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즉 신인합일설을 주장한다.

하나님이 사람 안에서 일하시면서 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과 완전히 똑같아질 때까지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 속에 공급”하여 “자신을 대량으로 생산할 것을 계획”하신다는 해괴한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기성교회를 바벨론 음녀라고 하며 기성교회 목사와 예배 등 대부분의 제도를 부정한다.

기성교회는 타락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고 불태워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성교회의 목회자와 예배를 부정하고 침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며, 성령 충만을 위해 “오 주 예수여!”를 반복적으로 주문처럼 외우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08 베뢰아아카데미(김기동/성락교회)

김기동의 <베뢰아아카데미(성락교회)>는 ‘귀신론’을 유포하여 교인들을 미혹함으로써 교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여러 교단에 의해 이단으로 결의된 집단으로서 현재 그 교세가 약화된 듯하지만, 귀신을 포함한 그릇되고 왜곡된 사설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그 권위를 부정한다.

오늘의 성경에는 성경과 성서가 있는데 성경은 계시이기 때문에 가감할 수 없지만, 성서는 계시인 성경을 증거해 주는 것으로 가감할 수 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성경은 모세오경과 공관복음으로 8권이요, 나머지 58권은 성서라고 주장한다. 성경을 강조하는 듯하지만, 귀신론 앞에서 성경의 가치는 격하되어 성경은 문틈으로 들어오는 빛에 불과하며 현재 성경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왜곡된 양태론적 삼위일체 사설을 주장한다.

하나님이 곧 성령이라거나 성령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아버지가 되며, 아버지가 성도 안에 있으면 성령이 된다는 해괴한 주장을 펼친다. 삼위가 각각 개체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장소에 따라 불리는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왜곡된 유비를 주장하며 삼위의 독자적 위격을 부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인성을 제한하는 사설을 주장한다.

예수님의 생애는 신의 생애가 아니고 사람의 생애인데 오히려 예수님을 신이라고 하면 이단이라고 하며,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 존칭어를 쓰신 것은 몸을 입고 계실 때 성령님을 같은 수준에서 말씀하실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인성을 제한하여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에서 왔고(요 1:14), 그 말씀은 곧 영이기 때문에(요 6:63),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의 영광 같은 수준이라고 하며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그 살은 영이라고 주장한다.

성령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왜곡된 사설을 주장한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지 성령이 아니며,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도 천사라고 주장한다. 성령이 오시지 않아도 예수를 인정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사도행전 본문에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라는 말은 ‘천사를 얻고’라는 말과 동격이라고 하여 모든 부분에서 천사일 뿐이지 성령은 허수아비와 같다고 주장한다.

이단적인 귀신 사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주와 인간 창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한다.

김기동은 자신의 귀신 사설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공부 교재인 『베뢰아 원장』에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이 세상은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한 감옥으로서 하나님께서 불완전하게 창조하셨다고 주장한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인간의 창조와 2장에 나오는 인간의 창조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1장의 인간은 혼과 몸만을 가진 동물의 자용을 칭하는 용어요, 2장의 인간은 그 중에서 뽑힌 개화된 인간, 즉 영을 가진 존재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귀신론이 핵심 사설인데, 귀신은 ‘불신자(조상)의 사후의 영’이라고 한다.

창세기 6장 3절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라고 하며, 그 수를 채우지 못하면, 남은 기간은 귀신이 되고 120년을 채우고 나면 지옥에 간다고 주장한다. 귀신의 정체에 대한 인식은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과 대화를 하고 경험에 의한 것이므로 정확”하다고 주장한다. 마귀 또는 사단을 ‘타락한 천사’로 보면서 귀신과 구별한다.

귀신 사설 가운데 가장 강조하는 주장은 모든 질병, 사고, 불신앙의 심성, 잘못된 성품의 원인이 귀신 때문이라는 것이다. 귀신은 인격이 아니기

에 스스로의 힘으로 사람의 몸에 들어오지 못하고 미혹의 영의 도움을 입어 들어온다고 주장한다. 모든 병, 심지어는 감기나 무좀 같은 질병조차도 귀신에게서 온다고 주장한다. 질병은 귀신이 사람의 몸에 붙어서 생기는 것으로 약이나 의술로는 궁극적으로 고칠 수 없고 축사를 통해서만 고칠 수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주장을 한다.

09 세계복음화전도협회(다락방/류광수)

류광수가 설립한 <세계복음화전도협회(다락방)>는 신약성경에서 보혜사 성령이 임재한 다락방에서 이름을 가져온 다락방전도운동을 통해서 태동되었지만, 왜곡된 교리를 가르치고 전하며, 또 윤리적인 문제로 인해 주요 교단에 의해 이단 집단으로 결의되었다.

구속사를 마귀와의 대결로 보는 류광수가 주장하는 마귀론이 핵심 사설이다.

<베뢰아아카데미>의 김기동의 마귀론의 기본 사상을 전도의 맥락에서 비슷하게 적용하여 “전도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 마귀의 세력을 결박하라”고 주장하며, “성도에게는 기도하면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천사동원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모든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병은 마음을 타고 들어오며, 마음의 병은 악령의 활동이며, 특히 정신병은 사단(마귀)과 미혹의 영(악한 영)의 작용 때문이고 연속적인 재난, 불화, 실패는 모두 영적인 병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믿음의 단계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구원에 대한 왜곡된 견해를 주장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이며,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진짜 복음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락방 전도운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지역교회 교인들에게조차 다락방의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영접시키는 사례가 나타난다.

구속사, 마귀, 믿음과 구원에 대한 왜곡된 사설에 입각하여 지역교회를 비판하고 부정함으로써 교회의 혼란을 야기하고 일치와 교제를 깨트린다.

‘다락방전도훈련원’을 중심으로 전도운동을 목적으로 행하는 다락방식 성경 공부는 정통교회에서 수용할 수 없는 왜곡된 사설을 주장함으로써 교인들을 혼란하게 하고 있다. 다락방 전도운동을 전도의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배타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지역교회들의 불신하고 비판하면서 교회의 일치와 교제와 협력을 부정한다.

10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몰몬교)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몰몬교)>는 자신을 예언자로 부르는 조셉 스미스(Joseph Smith)의 계시와 환상에서 비롯되어 미국에서 기원하고 세워졌으며, 미국에서 지상천국의 건설을 주장하는 이단 단체이다.

네 권의 경전, 즉 ‘성경,’ ‘몰몬경,’ ‘교리와 성약,’ 그리고 ‘값진 진주’를 나란히 추종함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상대화한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경전으로서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 바르게 번역된 한도 내에서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성경의 정경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며 또 다른 경전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성경은 이미 오염되고 왜곡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세 권의 책을 더욱 신봉하고 있으며, 특별히 물몬경을 최고의 영감된 책으로서 신령하게 여긴다. 따라서 그들은 성경의 영적 권위는 물론 계시의 궁극성을 부인한다.

하나님을 인간화하는 이단 교설을 주장한다.

하나님은 존귀함(승귀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여러 신들의 존재를 믿으며, 하나님은 한때 한 인간에 불과했다고 주장한다. 물몬교에 가입한 남성들은 하나님처럼 신격에 도달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들에 의하면 예수님과 루시퍼는 형제였으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으로 선택할 때에 루시퍼가 반대하면서 대항하게 되었다는 터무니없는 신비적인 교리까지 주장한다.

현신적인 물몬교도들만이 참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몬교에 의하면 지옥이나 영원한 형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에 의하면 구원이란 세 가지 단계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천경왕국’(celestial kingdom), ‘지경왕국’(terrestrial kingdom), 그리고 ‘원경왕국’(telestial kingdom)이다. 원경왕국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모든 이들이 가는 곳으로, 그곳에 들어간 이들은 높은 이들의 종이 될 것이며, 하나

님과 그리스도가 거하는 곳에는 올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지경왕국은 복음을 받아들였으나 천상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이들을 위한 곳이며, 천경왕국은 신들이 될 멜기세덱의 회원들, 곧 헌신적인 몰몬교도들을 위해서만 준비된 장소라고 주장한다.

몰몬교만이 참된 교회이고 몰몬교를 제외한 모든 교파들은 타락한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교회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몰몬교를 세우셨다고 주장한다.

결국 몰몬교의 교리는 터무니없이 신비주의적 사고에 빠져있으며, 헌신된 몰몬교도들을 제외한 다른 이들은 참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창시자인 조셉 스미스를 신격화하는 이단종파로서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일부다처제에 관한 교리를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인종차별적 교리 역시 가지고 있어 사회적인 물의도 피하기 어렵다.

11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안식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안식교)>는 열성적인 침례교인이었던 윌리엄 밀러(William Miller)의 그리스도의 재림 예언에 의해 기원하고 여언자로 통하던 엘렌 화이트(Ellen G. White)의 재림 환상과 예언을 통해 집단적으로 형성된 미국에서 기원한 이단 단체이다. 특별히 시한부 종말론적인 성경 해석과 율법주의적 행위 구원에 대한 교리적인 주장으로 인

해 여러 교단에 의해 이단 단체로 규정되었다.

시한부 종말론적인 축소적인 성경 해석을 주장한다.

구약의 묵시 본문인 다니엘 8장 14절, 9장 25절, 에스라 7장 11절부터 26절 등 2,300주야 관련 성구를 인용해서 1일을 1년으로 계산하여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를 1844년으로 특정하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다. 이 예언의 실패 후 ‘조사심판’이라는 사설을 주장한다. 즉 1844년을 예수께서 성전의 첫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지상 인간의 행위를 조사심판하여 흠과 티가 없는 자만을 구원한다는 해석이다.

또한 엘렌 화이트의 환상적이고 예언적인 성경 해석과 그 저술에 성경과 비슷한 권위를 부여한다.

교회의 전통을 철저하게 부정하며, 토요일 안식일과 율법의 준수 등, 율법주의적 행위 구원을 주장한다.

안식일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상징이요, 성화의 징표이며, 우리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험할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미리 맛보는 시간”이라고 주장한다. 주일과 부활절을 태양과 관련된 이교도의 우상 숭배 축제로서 로마 교회에 의해 잘못 공인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구원을 ‘큰 구원’과 ‘영원한 구원’으로 나누면서, 전자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지만, 취소될 수 있는 불완전한 구원이고 후자는 율법을 지킴으로 얻어지는 구원으로서 흠도 티도 없어야 받는 완전한 구원이라고 주장한다: “주의 이름을 믿는다고 모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조사심판의 결과에 따라 구원이 확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음식에 관한 구약의 율법 규정을 엄격히 따른다.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율법에 따라 가증한 음식을 먹는 것을 금지한다. 육식을 금지하고 채식을 강조하며, 심지어 음식 규례 준수 여부를 구원과 연결시킨다.

12 기타 이단사이비 집단의 사설에 대한 간략한 설명 도표

위에서 설명한 여러 이단사이비 교설의 문제를 더욱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주요 교리에 따라 간략하게 도표로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주제	관련 교리	거짓된 교설
성경	직통 계시 비유 해석	다른 계시 혹은 직통계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박태선, 안식교, 몰몬교, 통일교, 박윤식, 이장림, 이만희 등) 성경 번역의 특별함을 강조하면서 사설을 만드는 경우 (변승우) 해석상 알레고리를 적용하여 바른 해석을 손상시키는 경우
하나님	삼위일체론 - 작정(예정), 창조와 섭리	삼위일체론의 부인 혹은 양태론적으로나 삼신론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 지방교회(윌트니스 리)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노광공, 박태선, 박윤식, 통일교, 이만희, 안상홍, 정명석, 원세호, 이초석 등)

인간	타락, 죄와 벌, 은혜 언약	인간에 대한 삼분설적 시각 원죄도 자범죄도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재록) 특이한 죄론 (원죄의 성적타락설) - 통일교의 피가름 교리, 정명석(JMS) 신과 인간의 연합이 가능하다는 주장 - 위트니스리
예수 그리스도	증보자	완전한 신성, 완전한 인성을 고백한 칼케돈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릇 해석하는 경우 - 지방교회(위트니스리) 자신이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는 경우 (유독 한국에 많은 현상) - 문선명, 유재열, 이만희, 안상홍, 유명화 등
구원	자유 의지, 부르심, 칭의, 양자됨, 성화, 신앙, 회개, 선행, 견인, 구원의 확신	지나친 율법주의 (안식교) 구원의 날짜를 알아야 하고 한번 받은 구원은 회개와 성화가 필요없다는 교리 (구원과 및 유사 계열, 박옥수 등) 지나친 영적 신비주의 (빈야드 운동, 신사도 운동)
교회론	율법, 자유, 예배와 안식일, 맹세와 서원, 국가의 위정자, 결혼과 이혼, 교회, 성도의 교통, 성례, 권징, 대회와 총회	거룩한 공교회성을 부인하고 자신들의 파당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주장 (박태선, 이만희, 여호와의 증인, 권신찬, 류광수, 이재록, 정명석, 변승우) 국내외를 통틀어 많은 이단들에 나타나는 현상
종말론	죽음과 부활, 최후심판	시한부 종말론 (원래 안식교) 재림 예수의 극동(한국) 강림설 (통일교, 이만희 등 많은 이단의 공통현상)

대처 방안

이단·사이비 예방 10가지 실천 사항

첫째, 기독교 신앙의 기본자세를 확립한다.

둘째, 기독교 신앙의 기본 내용을 분명히 알아 둔다.

셋째,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진다.

넷째, 성경의 중요한 내용을 정확히 배우려고 노력한다.

다섯째,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에 힘쓴다.

여섯째, 무조건 믿는 것보다 다소 비판적인 시각도 가져본다.

일곱째, 이단·사이비에 대한 기초 상식을 알아 둔다.

여덟째, 건강한 교회와 화목한 가정을 이뤄 미혹의 틈을 주지 않는다.

아홉째, 정기적인 이단 사이비 특강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운다.

열째, 교회 내에 이단 사이비 대책 전문 상담 사역을 활성화하여 상시 적극 대응한다.

이단·사이비 예방 10가지 실천 수칙

첫째, 설문 조사 시 자신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지 않는다.

둘째, 교회 단체명을 도용할 가능성이 있기에 반드시 소속 교단 및 기관을 확인한다.

셋째, 지나친 친밀하게 접근하는 사람을 반드시 주의하고 확인한다.

넷째, 교인에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성경에 대한 질문을 미리 주지시킨다.

다섯째, 도형 심리, 인문학 강좌, 대학 동아리 등 다양한 통로의 접근에 대해 환기시킨다.

여섯째, 이단 관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목회자에게 알린다.

일곱째, 검증된 이단 전문가를 통해서 이단 상담을 받는다.

여덟째, 1년 1회 이상 이단 세미나를 개최한다.

아홉째, 교회에서 이단 전문상담사를 교육하여 교인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열째, 교인이 이단의 실체에 대해 경각심을 지니도록 계도한다.

참고 자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문선명) 연구보고서」(1971, 1975, 1976, 1979, 1988, 1989)

____. 「구원파(권신찬, 이요한, 박옥수) 연구보고서」(1974, 1983, 1992)

____. 「베뢰아아카데미(김기동) 연구보고서」(1987, 1988, 1990, 1992, 1994)

____. 「지방교회(윌트니스 리) 연구보고서」(1991, 2006, 2008)

____. 「신천지/이만희) 연구보고서」(1995)

____. 「세계복음화전도협회(다락방/류광수) 연구보고서」(1996)

____. 「만민중앙교회(이재록) 연구보고서」(1999)

____. 「국제크리스천연합(정명석) 연구보고서」(2002)

____.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회/안상홍증인회) 연구보고서」(2002, 2011)

____.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안식교) 연구보고서」(1909, 1995)

____. 「물몬교 연구보고서」(2014, 2023)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이단사이비문제상담소, 「2024 이단 경계주일을 위한 목회자료 가이드북」, 탁지일/김정수 편집.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간추린 이단 바로 알기 (Comprehending Christian Heresies and Cults)』(2021)

이단경계주일 자료집

초판발행 2025년 6월 30일

편 집 인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단사이비문제상담소

주 소 03128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3길 29(연지동, 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 5층)

전 화 (02) 741-4350 / 팩스 (02) 6008-2982

홈페이지 www.pck.or.kr

펴 낸 이 강성훈

펴 낸 곳 한국장로교출판사

주 소 03128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3길 29(연지동, 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 4층)

편 집 국 (02) 741-4381 / 팩스 741-7886

영 업 국 (031) 944-4340 / 팩스 944-2623

홈페이지 www.pckbook.co.kr

등 록 No. 1-84(1951. 8. 3.)

ISBN 978-89-398-4629-6 03230

※ 이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할 수 없습니다.